

익산시, 맞춤형 정책 '눈길'

임대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등 38개 사업 발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눈길을 모은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를 꾸린 시는 임대료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긴급 지원 등 자체 발굴한 38개 정책을 다듬어 민관협의회에 상정한 후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나설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전망된다.

9일 시는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 산하 실무추진단은 오택립 단장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체 발굴한 38개 경제 극복 정책을 논의했다.

38개 정책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공공배달앱 도입, 코로나19 어린이집 휴

원 수당 등이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월 10만원 이상 임차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의 50%를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 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배달앱 도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배달앱 주문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외 코로나19로 지속된 어린이집 휴원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별활동강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휴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농촌의 빈농가를 활용해 청년부부에게 무

상 제공하거나 노인 맞춤형 창업장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기간 연장,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등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실무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38개 안건을 다듬어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대책본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오택립 추진단장(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전북 최초 안심서비스 앱 시행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

홀로 있는 가족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군산안심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2021년부터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중증질환자, 학생 등 안전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산안심서비스' 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산안심서비스 앱은 시민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앱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며, 지정시간(최소 12시간 이

상)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다수의 보호자에게 위기상황 안내 문자가 발송돼 빠른 구호가 가능하도록 알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경남 합천군에서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된 앱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지출이 없었으며, 또한 별도의 서버가 필요 없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없고, 앱 사용이 간단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

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가구형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군산안심서비스 앱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안심서비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SK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업체 우선 계약 적극 추진, 행정지원 강화

익산시, 6월말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

익산시가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해당 기간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 등 기존

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해 적용된다. 또한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앞서 시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제정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지역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우선계약에 일반시민, 단체, 기업체 등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올해에도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한돈 1,000kg을 9일 전달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 되길"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 설 명절 맞아 나눔 실천

군산시는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지부장 김현섭)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올해에도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한돈 1,000kg(500만원 상당)을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현섭 군산지부장은 "전달된 상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

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우리 시에서도 지역 내 나눔을 통해 더 따뜻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부된 성품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호응

최대 3천만원 대출·연 4%까지 5년간 이자 지원

담보 능력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익산시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용자가 3배 이상 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면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2명, 금액은 8억9천6백만 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월평균 12명 정도에 그쳤던 지원자 수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더욱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과 협의해 특례보증 추천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자금지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으나 지원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방문 절차를 축소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대출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비율을 2%에서 4%까지, 이차지원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액을 전년보다 20억원이 늘어난 5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지는 지역에 주소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신용평점(599점 ~ 839점) 기준 신용등급 4등급~7등급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최대 3천만원 대출자금 보증과 5년간 본인 부담 1%를 제외하고 최대 4%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설 연휴 거리두기 당부

김임준 군산시장이 설 연휴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9일 김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는 코로나19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 간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상을 되찾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통화나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여행도 자제하는 비대면 명절을 보내길 당부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급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고병민 기자

익산, 설 연휴 방역수칙 당부

익산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98명이라고 밝혔다.

익산 198번(전북 1,063번) 확진자는 김제 육가공업체 확진자인 익산 191번(전북 1,03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김제 육가공업체 관련 익산 자가격리자 37명은 이날 해제 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14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